

내달 시행 '비정규직 보호법' 우려가 현실로...해고 속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비정규직 법안이 되레 비정규직들을 일터에서 내쫓고 있다. 다음달 1일 기한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개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한 편법해고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전남 기업 정규직 전환 회피 기아차·신세계 등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법안은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보장과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금지 등이 골자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재산신 약화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정규직화 대신 해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잇따르는 계약해지>=광주 모 유통업체의 경우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계약직 여직원 5~6명을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용역업체로 보내진 후 같은 업체에 출근하고 있으나, 언제 그만둘지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남지역 모 금융기관도 20여명의

계약직 직원을 도급업체 소속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S여고 행정실에서 13년째 근무하던 J모씨는 지난 1월 학교측으로 부터 다른 비정규직 3명과 함께 해고 통지를 받고는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보다 필포장 캐디,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은 사정이 더 열악하다. 이들은 비정규직 논란에서조차 제외돼 있는데다 정부가 6월 통과시키려던 '특수고용직 보호법'의 국회처리가 가물로 연기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속속 정규직 편입>=지난 20일 세계는 5천여명의 비정규직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신세계백화점을 비롯, 광주·전남 이마트 7개 점포 소속 359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아차는 다음달 1일자로 광주공장 사무직 비정규직 8명을 포함, 10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40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은행,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홀플러스 동광주점도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모색 중이다. <관련법 전면 개정 등 대책 세워야>=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법안이 오히려 대량해고를 부를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때 이미 예고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상에 처우 친 정부의 탁상행정이 비정규직을 내몰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법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여수 산단 노사분규 매년 감소

전남 동부권의 생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노사분규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여 노사문화가 한층 성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일 여수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지난 2004년 11건에서 2005년 5건으로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지난 해에는 단 1건에 그쳤다. 2004년 GS 칼텍스 여수공장 노조의 한달 이상 장기파업으로 노조원 10여명이 해고되고 사측은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는 등 노사가 극심한 내분을 겪은 후 여수국가산단 안에서는 '대규모 분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여천 NCC 노조가 상여금 지급규모를 놓고 10여일간 파업한 후 여수국가산단 내 노사는 8개월째 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잦은 노사분규로 인해 여수가 강성 이미지로 각인된 데 대한 노·사·지역민들의 극복 노력과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기업하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가도록 노사간의 양보와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하도급과 해고자 복지문제 등으로 노사간 갈등이 내연하고 있는 등 분규조짐도 있어 사측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명품 한우로 만든 '맛 지도' 한우 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5일 낮 국회에서 열린 '한우사랑' 국회사식회에서 참석자들이 팔도 명품 한우로 만든 '맛 지도(한반도 모양)'를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로 집값 잡겠다더니... 수도권은 '과열' 지방은 '침체'

최근 1년간 수도권 집값이 20%나 뛰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의 집값은 되레 하락하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투기과열지구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수도권 집값은 1년 전보다 19.2% 올랐다. 이는 국가산단 내 노사는 8개월째 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잦은 노사분규로 인해 여수가 강성 이미지로 각인된 데 대한 노·사·지역민들의 극복 노력과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기업하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가도록 노사간의 양보와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하도급과 해고자 복지문제 등으로 노사간 갈등이 내연하고 있는 등 분규조짐도 있어 사측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같은 기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 대도시의 집값은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수도권과 대조를 보였다. 실제 대전의 집값은 1년새 1.75% 하락했으며, 대구와 부산은 각각 0.7%, 0.4% 떨어졌다. 광주도 1.4% 오르는데 그쳐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방 대도시의 경우 주택시장 같은 기간 전국의 집값 상승률(10.8%)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같은 기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 대도시의 집값은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수도권과 대조를 보였다. 실제 대전의 집값은 1년새 1.75% 하락했으며, 대구와 부산은 각각 0.7%, 0.4% 떨어졌다. 광주도 1.4% 오르는데 그쳐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방 대도시의 경우 주택시장 같은 기간 전국의 집값 상승률(10.8%)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실효를 거두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하면 5만원 포상금

국세청(청장 정근표)은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

수증 가맹점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제 도입을 계기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확대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경관보전직불제 관광객 유치 '효과'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 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림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 기간이 제도의 추진 성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보기에 좋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유채·메밀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 정부에서 1ha당 17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 소득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다. 농림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이

후 해당 지역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늘고 도시민 방문도 잦아져 농촌마을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메밀을 재배하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경우 '유채문화제' 기간에 57만명의 외지인이 방문했고, 고창군 공음면과 부안면에서 각각 개최된 메밀축제와 국화축제는 각각 20만명, 15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연합뉴스

기아차 'Q멤버스' 회원 50만 돌파 이벤트 다양

기아자동차(주)가 기아차 보유 고객을 위한 멤버십프로그램인 'Q멤버스'의 50만명 회원가입 돌파 기념해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Q멤버스 사이트(www.Qmembers.com)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프리미엄 매거진'을 다음달 18일까지 열람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신청자를 가운데 추첨을 통해 ▲그랜드 하얏트 숙박&브런치 패키지(1명) ▲i-Station(1명) ▲니콘

콜픽스(1명), ▲영화에매권(30명·1인2매) 등 선물을 제공한다. 행사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1명) ▲천연가족시트장차 서비스(2명) ▲주유상품권(5명) ▲타이어교환권(10명) ▲Q포인트(100명)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탄생한 Q멤버스는 기아자동차에서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멤버십프로그램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韓銀 광주전남본부 여름방학 '경제캠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중학생 45명 내외로 참가비는 무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달 6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홍보팀 이메일(gwangju@bok.or.kr)이나 팩스(062-382-8164)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경제캠프에선 신용관리과 게임으로 알아보는 자산관리 요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산업현장 견학도 실시된다. /정필수기자 bungy@

Gallery RODEM 직수입 엔틱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찾아오시는 길: 기동병원, 백운동, 남광주, 삼성디지털프라자, 현대자동차, 미래이동병원, 로템

특별기획상품행사

진열상품 30%~최고50% (일부품목제외)

대표전화: (062) 653-4022
몰류센터: 담양군 청평면 유천리 253-1

SASA & 톰과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A/S
아동가구 13년! 아동학생가구 시장의 자존심을 세워나갑니다. 신속한 정보: 제품 배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A/S신청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SASA 만이 SASA 가구를 A/S를 할 수 있으며, 수리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 결함시 1년간 무상A/S, 이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불편한 점이 생기면 A/S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Design
프린세스 원목 시리즈 출시
프린세스 원목시리즈는 미술품 원목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가볍고 미려한 곡리(나무결)를 가지고 있으며, 질서정연하게 가공하였기에, 울이, 뒤틀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 어린 자녀라면 부모님과 함께 잘 수 있으며, 중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A/S센터 대표번호: 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